

## 제3차 중남미-EU 정상회담 결산

### 1. 내용

□ 지난 5월 28~2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중남미 33개국, EU 25개국 등 총 58개국 정상들은 제3차 중남미-EU 정상회담을 갖고 과달라하라 선언문을 채택했음.

- 금번 선언문은 크게 △다자주의 △사회적 결속 △양지역관계라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됨.

- 먼저 다자주의와 관련, 이번 선언문에서 양 지역 정상들은 국제무대에서 다자주의 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분쟁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 등 유엔개혁을 주장했다.

○ 특히 양 지역 수반들은 공동선언문에서 △이라크 포로 학대 비난 △국제형사재판소(ICC)에 대한 완전한 지지 △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 촉구 등을 주장했다.

- 또한 사회적 결속과 관련, 양 지역 정상들은 사회적 결속을 통해 빈곤, 불평등, 사회적 배제가 없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음.

- 마지막으로 양 지역 수반들은 양자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EU-중남미 각 경제통합체간 FTA 협상을 본격 개시하기로 합의했음.

○ 현재 진행중인 MERCOSUR-EU간 FTA 협상은 오는 10월까지 종료키로 했으며 중미공동시장(CACM)과는 오는 9월부터 FTA 협상을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했음.

○ 한편 EU-안데스공동체(CAN)간 FTA 협상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카리브국가와는 콘토노우협정(Contonou Agreement)<sup>1)</sup>의 틀 내에서 경제동반자협정(Economic partnership

1) EU와 아프리카, 카리브해 및 태평양지역(ACP)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정으로 주요 협력분야는 정치대화, 무역

Agreement) 협상을 개시기로 합의함.

- 한편 차기 제4차 정상회담은 2006년 5월 12~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기로 함.
- 한편 금번 양 지역간 정상회담과 별도로 멕시코-브라질 대통령 간에 개최된 2국간 특별 정상회담에서 멕시코 대통령은 MERCOSUR 준회원국 가입(FTA 체결)을 공식 제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.
- 현재 멕시코 정부는 오는 7월 8일 개최되는 MERCOSUR 정상회담에서 MERCOSUR 준회원국 가입을 공식 제의한다는 입장임.

## 2. 배경

- 중남미-EU 정상들은 양 지역간 총체적인 협력강화를 위해 1999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2002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회담을 가졌음.
- 제1차 정상회담에서 양 지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△다자주의 및 국제법 준수에 기초한 정치적 대화 △포괄적이며 균형된 무역 및 자본흐름 자유화에 기초한 확고한 경제·금융관계 △교육, 과학기술, 문화, 인적교류 및 사회분야 등에서 협력 등 3가지 전략적 협력분야를 설정했음.
-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1차 회담에서 합의된 협력사업이 공고화되었음.
-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중남미-EU 정상회담의 결과에 힘입어 양 지역간에는 활발한 FTA 협상이 전개되었음.
- 그러나 EU의 對중남미 FTA 추진 전략은 미국의 전략과는 달랐음. 미국이 1994년부터 미주 쏘지역을 대상으로 한 FTA 협상(FTAA)을 추진해온 데 반해 EU의 경우 멕시코, 칠레, MERCOSUR 등 주요 중남미 전략대상국

---

과 투자, 개발협력 등임.

과 우선적인 FTA 협상을 추진했음.

- 이 결과, 멕시코-EU간 FTA가 2000년 처음으로 체결되는데 이어 2002년 11월에는 칠레-EU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1999년부터 추진되어온 MERCOSUR-EU간 FTA 협상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.

- 한편 상대적으로 EU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CACM 및 CAN과는 FTA 협상 추진의 前단계 성격인 정치대화협력협정이 체결(2003.12) 되었음.

□ 중남미-EU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 포괄적 협력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이해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성격이 강함.

- 먼저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에서 EU와의 관계 강화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EU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고 FTAA 등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임.

- 그에 반해 EU의 입장에서 중남미지역과 협력확대는 미국의 공격적인 중남미시장 선점 전략에 대응, 점차 약화되고 있는 중남미시장에서 EU의 전통적인 시장기반을 고수하겠다는 전략이 강하게 작용함.

□ 중남미-EU간 경제관계는 그간 양 지역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반영,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교역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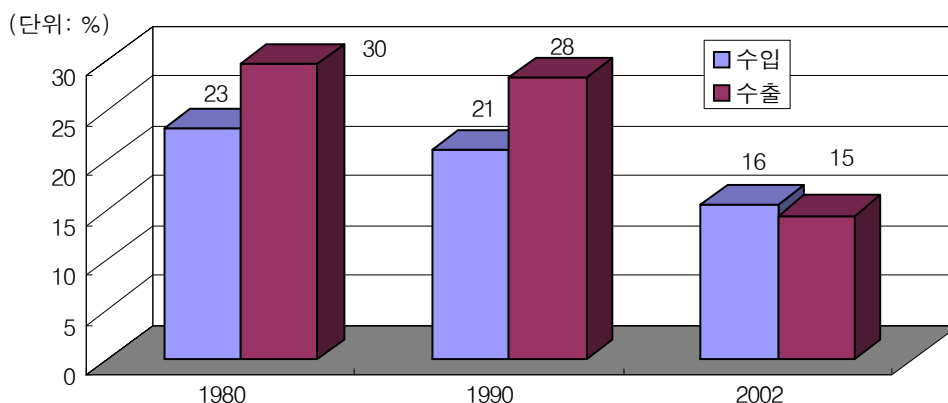
- EU는 중남미 최대 직접투자국으로서 위상을 굳히고 있는 반면, 교역 면에서는 그 비중이 크게 약화된 상황임.

- EU의 對중남미 투자는 2000년 정점을 이룬 직후 감소세에 있으나 여전히 최대 투자국으로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.

- 199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EU의 對중남미 투자는 2000년 394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크게 하락, 2002년에는 110억 달러로 급감했음.

- 2002년 말 현재 EU의 對중남미 누적 투자액은 1,986억 달러에 달함.
- EU는 미국에 이어 중남미지역의 제2대 무역상대국이나 1980년대 이후 그 위상이 약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임.
- 중남미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EU의 비중은 1980년 30%에서 점차 하락, 1990년에는 28%에서 2002년에는 15%로 급감했음. 또한 EU로부터의 수입비중도 1980년 23%에서 2002년에는 16%로 하락했음.
- 한편 양 지역의 교역품목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한바, 중남미지역의 對EU 수출품은 농산물 및 원자재 등 1차산품의 비중이 높은 반면, EU로부터의 수입물품은 기계류, 자동차 등이 대종을 이룸.
- 중남미지역의 對EU 수출품(2002년 기준)은 농산품이 40.5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수송장비 9.2%, 에너지 8.9%, 기계류 8.4%, 화학제품 4.1%, 섬유 의류 1.2%, 기타 27.7% 순임.
- 그에 반해 중남미지역의 EU로부터 수입은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, 기계류가 26.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송장비 24.9%, 화학제품 16.4%, 섬유 의류 2.3%, 농업제품 6.2%, 기타 22.2% 순임.

<중남미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EU시장의 비중>



### 3. 평가 및 전망

□ 금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중남미-EU간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,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관계 확대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임.

- 특히 조만간 EU와 FTA 체결이 확실히 되는 MERCOSUR의 경우 확대된 EU 경제권 진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- 또한 금번 회담이후 급진전될 중남미-EU간 FTA 협상은 현재 정세상태에 있는 FTAA 협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.

<중남미와 EU의 경제규모 비교, 2001년 기준>

|                      | 면적<br>(천 km <sup>2</sup> ) | 인구<br>(백만 명) | GDP<br>(10억 달러) | 1인당<br>(달러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멕시코                  | 1,958                      | 99           | 474             | 4,768       |
| 칠레                   | 757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       | 91              | 5,884       |
| MERCOSUR             | 11,911                     | 219          | 1,035           | 4,733       |
| 안데스공동시장<br>(CAN)     | 4,718                      | 115          | 263             | 2,278       |
| 중미지역                 | 499                        | 37           | 61              | 1,671       |
| 중남미                  | 19,843                     | 485          | 1,924           | 3,962       |
| 카리브공동시장<br>(CARICOM) | 622                        | 34           | 86              | 2,519       |
| 중남미카리브지역             | 20,464                     | 520          | 2,009           | 3,867       |
| EU-15                | 3,781                      | 378          | 8,541           | 22,485      |
| EU-25                | 4,599                      | 450          | 8,934           | 19,672      |

자료: ECLAC, Eurostat, World Bank.

□ 한편 대외정치적 측면에서 금번 정상회담은 유엔의 역할 강화를 통한 유엔의 개혁을 촉구하고 다자주의 원칙의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현재 국제무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음.

(권기수 미주팀 전문연구원 kskwon@kiep.go.kr)